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24~6/3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이층버스
2	요가디피카 (아쉠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이행가 / 현천스님	선요가
3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집입니다	틱낫한 / 이현주	불광출판사
4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청우당
5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6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청우당
7	법정스님이 세상에 남긴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	법정스님 / 김계윤그림	불교신문사
8	수구즉득다라니	불공 금강 / 석법성	운주사
9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10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본지풍광 설화)	성철스님	장경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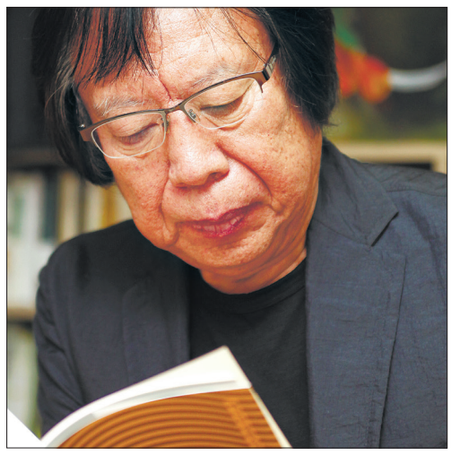
책세상

몰랐던 붓다의 '반쪽'을 본다



붓다 평전

백금남 지음 / 무한 펴냄 / 2만7천원



박재완 기자 waniholloo@hanmail.net

소설가 백금남이 본 붓다
한역의 오역 · 훼손 짚으며
붓다 생애 · 가르침 재정립
"붓다 옆구리 아닌 자궁서,
태자비 고파 · 마노다라" 등
새로운 사실 경전에서 찾아

2600여 년 전에 이 세상을 다녀간 석가모니부처님의 평전이 나왔다. 책은 단순한 전기가 아닌 평전이라는 점과 그 주인공이 석가모니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주목을 끈다. 왜 '평전' 일까. 그리고 이전의 부처님 전기와 무엇이 다른가.

책의 저자는 2014년 대종상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관상〉의 원작소설 〈관상〉과 〈궁합〉, 〈명당〉 등 역학 3부작의 소설가 백금남이다. 최근에는 소설 〈유마〉, 법정 스님의 일생을 조명한 〈바람 불면 다시 오리라〉, 〈천황살해사건〉, 〈십우도〉 등을 출간했다.

이번 〈붓다 평전〉은 2600년이라는 오랜 세월에서 비롯된 '변색' 에 주목한다. 석가모니의 시절은 당대의 역사를 문자로 적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석가모니의 위대한 일생은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설법을 통해 후대의 문자가 겨우겨우 받아 적은 것이다. 그리고 그의 설법이 그 무엇보다 위대하여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곳에서 여러 문자가 받아 적었던 것이다. 오늘날 여러 나라에 '경전' 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석가모니의 설법과 생애는 과연 얼마나 온전한 그의 흔적일까.

책 〈붓다 평전〉은 우리나라에 전해진 석가모니의 흔적이 변색으로 인한 반쪽짜리라는 사실에서 시작한다. 우리에게도 일찍이 붓다의 여러 경전이 전해졌지만 문제는 중국에서 한문으로 걸러진 경전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오역과 첨삭으로 인해 붓다의 원음과 달라진 문장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같이 붓다의 직언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설로 새겨온 붓다의 법과 생애는 석가모니 원음과 당대의 역사에서 많이 멀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성철 스님이 〈백일법문〉을 통해 밝힌 '대승비불설' 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우리불교 전반을 뒤흔들어야 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이었다. 책은 가야산 대선사가 던진 고백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강가에서 독을 푸는 부모들 곁에서 웃고 있는 소년, 벼랑에서 형제를 밀어 죽인 사내, 그리하여 쇠산지옥에서 수천 년을 고통 받았던 사내, 자신의 업보로 멸망하는 조국을 눈 형형히 뜨고 지켜보았던 사내, 그렇게 모두를 죽이고 밤하늘의 별이 된 사내….

그 사내를 진실되게 그려내자. 고착된 관념에 물든 나를 버리고 반쪽 붓다가 아닌 온전한 인간 붓다를 그려내자. 편파를 놓아버리고 한 인간을 사실대로 그려내자."

저자는 붓다의 완전한 모습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대승불교, 소승불교, 남방불교, 북방불교, 원전 및 많은 경전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석가모니를 본다. 고통에 찬 인간, 중생과 다름없는 인간을 본다. 여자를 사랑할 줄 아는 인간 석가모니, 애욕에 갈등하는 인간 석가모니, 바위에 발등이 깨어져 피 흘리는 인간 석가모니, 어미가 그리워 울고,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울고, 그리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일어서는 인간 석가모니를 보게 된다.

책은 붓다의 전생, 탄생, 태자의 삶, 출가, 성도, 열반에 이르는 과정을 여러 경전을 통해 상세하게 비교하고 정리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붓다를 보게 된다.

붓다는 마야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며, 태자 시절 결혼을 세 번 했다는 것이 대표적인 부분이다.

"싯다르타는 삼시전에 홍실을 향해 걸었다. 요즘 들어 야쇼다라가 있는 청실과 고파가 있는 향실은 찾고 싶지 않았다. 〈중략〉 마노다라는 나이가 있어서인지 어머니처럼 언제나 포근했다."

책은 석가모니가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 태어났다고 적고 있는 기록들을 소개한다. 또한 야쇼다라만을 기억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두 번째 부인 고파와 세 번째 부인 마노다라의 존재를 증명한다. 남전 빠알리 경전과 〈본불행집경〉 등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새로운 내용들은 저자 스스로 혁명적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설' 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책은 이 밖에도 한역을 거치면서 일어난 변색들을 소승경전과 대승경전들을 비교하며 붓다의 전기를 써나간다. 그 마침에서 만나는 붓다는 인간의 눈으로 본 인간 붓다의 모습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붓다의 나머지 반쪽이다.

이 시대 최상의 안심법문은 〈금강경〉



원빈 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 스님 강설 / 이층버스 펴냄 / 1만8천원



BTN '원빈 스님의 ~ ' 책으로
보살 27단의로 안심법문 소개
감산 주석의 수보리 의심 활용

현재 인류에게 최상의 안심법문은 무엇일까. 〈금강경〉이라고 말하는 책 〈원빈 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이다. 책은 BTN 불교TV에서 방송 중인 '원빈 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의 내용을 옮겨 실었다.

"흔히 사람들은 구하는 바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 더 좋은 차와 더 큰 집을 사고, 멋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사회적으로 번듯한 자리를 차지하고…… 과연 얻음으로써 행복해지려는 이 방식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금강경〉에서는 다툼과 질투 그리고 번뇌를 불러오는 얻음의 전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금강과 같이 견고한 지혜의 완성을 추구하는 〈금강경〉은 부처님이 사위국에서 수보리 등을 위해 설한 경전으로, 경계가 공(空)함을 설하고, 혜(慧)도 또한 공함을 보이며, 보살의 육바라밀도 모두 공함을 밝히고 있다. 곧 공혜(空慧)로써 체(體)를 삼고 무상(無相)으로 종(宗)을 삼아 일체법이 무아임을 설하고 있다.

책은 〈금강경〉의 안심법문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보살의 27단의를 활용하여 뼈대로 삼고 있다. 특히 당나라 감산 대사의 〈금강경〉 주석에서 언급되는 수보리 존자의 의심을 활용한 것인데, 세친 보살의 27단의와는 다르게 감산 대사는 이 의심을 3가지로 더 세분화하고 있다.

감산 대사의 〈금강경〉은 금강심을 인금강이 아닌 과금강으로 표현함으로써 길을 찾는 나그네들에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일러주는 돈오(頓悟)를 제공한다. 그리고 세친보살이 언급한 27가지의 의심을 좀더 상세하게 풀어냄으로써 이해하기 쉽게 해석했다. 또한 의심을 끊어 안심에 이르는 단순한 점수(漸修)의 원리를 세우고, 이 원리에서 벗어나는 해설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그 내용이 매우 간결하다.

저자 원빈 스님은 책을 처음 기획할 때 감산 대사의 〈금강경〉을 그대로 복주석하려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시대 상황에서 설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강경〉 원본에 대한 연구와 인도불교사에 대한 학계의 연구 결과들이 감산 대사 〈금강경〉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감산 대사의 과금강적 관점과 수보리 존자의 의심을 끊는 구조를 뼈대로 삼되, 현대의 인도 〈금강경〉에 대한 연구 결과를 포함한 내용을 살로 붙였다. 또한 서두에 제시되는 원문은 한국 불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구마라집본과 소명태자의 32분설을 그대로 활용한다. 현장본이나 범본에만 등장하는 내용들은 중간중간 해설에서 소개한다. 또한 앞에 소개한 등장인물들의 관점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원빈 스님은 세친의 27단의를 읽다가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었다. '수보리 존자는 아라한인데 과연 이런 의문을 일으켰을까?' 원빈 스님은 "제시되는 의문들이 아라한의 지혜 수준과 괴리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이 가르침이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로 설정되었지만 사실은 기원후 100여 년 경 보살승운동의 수장과 제자들의 대담에 가깝기 때문"이라며 "이 책에서 제공되는 의심은 수보리 존자가 아닌 보살승운동의 수제자 또는 부파불교의 비구들이 보살의 수행 중 일으킬만한 의심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상담(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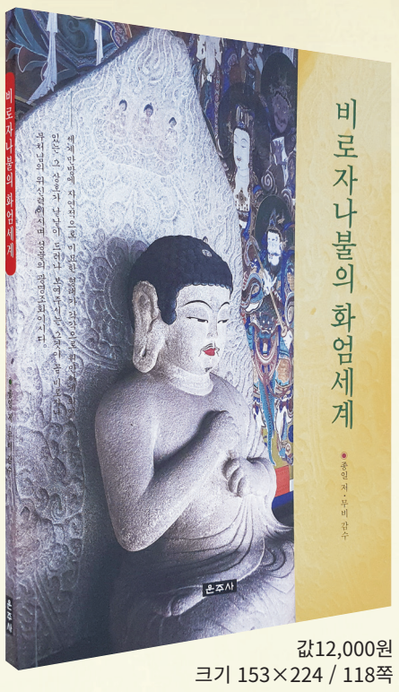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비로자나불의 화엄세계



저자 권종일 스님

비로자나불이란?
불교에서는 수많은 부처님을 이야기한다. 역사상에 등장하였던 세존으로부터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아미타불, 약사불 등등이 그것이다.
그 모든 부처님을 아우르며 그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 되는 **부처님이 곧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이처럼 많은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부처님이므로 그를 인격화하고 불격화(佛格化)하여 설명하려면 구원겁(久遠劫) 이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나간 세상, 말로는 이루 다 설명할수 없는 오랜 겁전에 승음(勝音) 세계가 있다.
그 세계에는 일체공덕산수미승운(一切功德山須彌勝雲)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나라에 대위광 태자가 있어서 부처님을 섬기면서 온갖 불법을 닦아 익혔다.
太子는 여러생을 거듭하면서 여러 부처를 섬기며 수행, 고행, 난행(難行), 공양(供養), 찬탄(讚歎), 체험(體驗), 체득(體得)한 뒤 결국 成佛하게 되니 그가 곧 비로자나부처님이십니다.
법신 비로자나불은 現在 海印三昧 가운데 들어계시고 보현보살님이 비로자나부처님의 원력을 대신 대행하십니다.



값12,000원
크기 153×224 / 118쪽
운주사

구입문의 : 031-510-9077 권종일 스님